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 성료 어촌·어항·어장관리의 선진화 방안 제시

6월 19일 서울 노보텔엠배서더 독산에서 한일 관계자 100여명 참석



한국어촌어항협회는 6월 19일 서울 노보텔엠배서더독산 신라홀에서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어항어장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관 및 연구계, 업계 등 어촌어항어장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어촌어항어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이날 회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희도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상기 서기관이 ‘어항 이용 활성화 방안’, 본회 김국주 팀장이 ‘갯벌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으며, 일본측에서는 (재)어항어장어촌종합연구소 호리코시 노부유키(堀越伸幸) 기술심의역이 ‘어항의 이·활용의 고도화 사례’,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나카무라



타카시(中村隆) 과장보좌가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장기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했다.

또한, 나카무라 타카시 과장보좌는 ‘동일본대지진 복구 및 부흥’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도 하였다.

이번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를 통하여 어항어장의 선진화된 관리방안이 확립되어야 하며, 어촌·어항·어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어촌의 소득을 창출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

회의를 마치고 양국 대표단 일행은 화성시 전곡항과 갯벌참굴시험장을 시찰하였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다나카 준지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과 수산청 나카무라 타카시 어항어장 정비부 계획과 과장보좌를 비롯한 연구소, 관련업체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



- ① 어항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서기관
- ② 갯벌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국주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장산업팀장
- ③ 어장의 이·활용의 고도화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호리코시 노부유키 (재)어항어장어촌종합연구소 기술심의역
- ④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나카무라 타카시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과장보좌
- ⑤ 토론에 응하고 있는 양국 발표자와 좌장(사진 가운데 안희도 좌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 한국측 대표단



▲ 일본측 대표단



▲ 6월 19일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국 대표단



▲ 회의 전날 옹진수협에서 조합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일본측 대표단



▲ 옹진수협 방문후 일본측 대표단은 인천종합 어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회의 전날 환영만찬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방기혁 이사장(좌)과 다나카 준지 회장(우)



▲ 대표단 일행은 경기 화성시 소재 전곡항 마리나시설을 시찰



▲ 갯벌참굴시험장을 둘러보고 있는 양국 대표단

어항과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산자원의 증대와 어촌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방안 강구



방 기 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

오늘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위하여 일본에서 오신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카 준지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대표단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어항 과장님과 모든 수산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는 양국 협회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지난 16년간 수산기반산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정보의 교류, 그리고 관계자들의 우의를 다져온 뜻 깊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촌과 어항을 단순한 수산물 생산의 장에서 생산·유통·가공 기능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공간으로,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조화된 국민의 행복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성장동력의 축이 되는 수산업을 지지하는 어촌어항어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양국간의 기술 교류를 오래도록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의의 테마는 「어항어장관리 선진화 방안」입니다. 어항과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산자원의 증대와 어촌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양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와 함께 오후에는 화성시에 소재한 전국항과 갯벌시험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회의나 시찰지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어촌어항어장의 발전을 위한 기술과 정보 교류는 물론 양국의 수산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서 좌장을 맡아 주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희도 명예연구위원님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업과 이를 지지하는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를 확신



다카나 준지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다나카입니다. 일본 측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를 이곳 서울에서 개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본 회의를 준비하여 저희 일행을 따뜻하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신 한국어촌어항협회 방기혁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바쁜신 와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해양수산부의 최 현호 어촌어항과장님, 심호진 전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협회는 1988년 어항대회로부터 교류가 시작되어, 이후 밀접한 관계와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을 통해 금년에 벌써 16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후 논문발표 및 현지조사를 통해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양국 협회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해져 왔습니다.

양국은 세계 우수한 어업국으로, 수산업, 어촌은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한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 연안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수산업, 어촌은 어장환경이나 자원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업생산 및 어업자의 감소,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어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연료가격의 상승, 어가의 하락 등에 의해 어업경영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여 어촌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반이 되는 어촌·어항·어장의 정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양국간의 기술교류를 심도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며,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를 「어항어장관리의 선진화방안」이라고 정한 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한 것이며, 중요한 수산업과 이를 지지하는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2년 3개월전 동일본대지진 때에 한국 여러분으로부터 의연금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원조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해지에서는 인원부족, 재료부족 등 복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조금씩 복구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류회의가 더욱 더 발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활약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회의 및 현지시찰로 신세지게 될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인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국민이 바다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최 현 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카 준지 회장님, 한국어촌어항협회 방기혁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 여러분!

제16회 한일어촌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기술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수산기반 구축에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어항어장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급격한 환경변화 및 수산업 생산 둔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업인들의 삶의 근간이자 수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어촌·어항·어장에 관한 민간단체 간의 교류는 양국 수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꿈과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어촌·어항·어장관계자 여러분!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순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어항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에서 어업인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국민이 바다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 어촌·어항·어장관계자 여러분!

오늘 교류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어촌·어항·어장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양국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과 위기를 뛰어 넘는 혜안으로 이번 회의가 한·일 양국 간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